

1) 나는 야크입니다



이 동화는요

야크는 3천년 전부터 티베트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야크를 아끼고 사랑하며 티베트의 상징으로 야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야크는 물소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고 검은색, 갈색,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은 야크라고 부르지만 암컷은 드리라고 부릅니다. 티베트의 날씨가 춥고 건조하므로 채소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야크 고기와 치즈, 버터 등을 먹습니다. 야크는 티베트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이며 유목민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야크와 드리가 많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크 털을 엮어서 텐트나 비옷도 만들고 밧줄이나 가방도 만들고 가죽으로 장화나 가방, 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뿔과 꼬리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야크는 평균 30년을 사는데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해줍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야크를 소중한 보석처럼 여기며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 줍니다. 야크는 단순히 짐나르는 동물이 아니라 매우 유용한 동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크의 생김새, 하는 일, 쓰임새 등에 대해 알 수 있고 티베트 사람들에게 야크가 얼마나 중요한 동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티베트의 자연환경과 티베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야크의 생김새, 야크가 하는 일, 야크의 쓰임새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티베트의 날씨는 어떠한가요?
- 야크는 언제부터 티베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까?
- 야크의 생김새는 어떠합니까?
- 야크 암컷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티베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 야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야크의 털로 만들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야크가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티베트 사람들은 야크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봅시다.

-티베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티베트는 현재 우리가 흔히 '한국', '일본', '태국' 등을 말할 때 생각하는 것 같이 '나라'는 아닙니다. 현재 티베트는 중국에 속해 있으며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티베트족 자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베트를 말할 때는 '티베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티베트는 1950년 중국에 의해 중국 자치구로 편입되었고 그 이후 티베트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비록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있으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다람살라에는 티베트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세운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습니다.

- 티베트의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

Tip!

라마는 티베트 불교 승려 가운데에서도 덕이 높은 승려를 말해요.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를 티베트의 종교와 정치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의 지도자인 14대 달라이 라마의 이름은 '텐진 rich' 인데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게 되자 1959년 피난길에 올랐으며, 인도 북부에 있는 다람살라로 피신하였어요. 달라이 라마는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웠고 지금까지 티베트의 종교 수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에 민족의 현실을 알리고 독립을 호소하고 있으며, 1989년 비폭력적인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답니다.

– 티베트의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보시다.

Tip!

티베트는 남쪽의 히말라야를 비롯하여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가장 큰 고원에 위치해 있어요. 평균 고도가 해발 4,500M나 되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겨울이 길어 매우 춥고 여름은 굉장히 짧아요. 티베트의 기후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날리며 바람도 많이 불고 급격히 변하기도 하지요. 작은 구름이 지나가면 바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고지대는 산소가 아주 부족합니다.

– 티베트의 음식 참파(잠빠)

Tip!

참파는 볶은 보리를 갈아 만든 티베트의 주식이에요. 가루형태의 참파에 야크 버터와 물을 섞어 먹어요. 취향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으며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참파 가루를 하늘에 뿌리기도 합니다.

– 티베트의 유목민

Tip!

티베트의 고원에 사는 유목민을 ‘독빠’라고 부릅니다. 유목민들은 야크와 양, 말을 기르며 동물에게 먹일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살아요. 현재 티베트 인구의 30~40%정도는 아직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으며 야크가족으로 만든 전통 티베트 텐트에서 머물면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야크는 꼭 필요한 동물이에요. 야크의 고기와 젖은 식량이 되고 가죽은 옷이 되고 배설물은 연료가 돼요. 늑대나 눈표범, 스라소니 여우 등을 쫓기 위해서 개를 기르며 사냥용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양떼를 지키거나 야크 똥을 주워 모으고 전통에 따라 일곱 살이 되면 고무총을 받아서 갖고 놀기도 해요.



체험해봅시다.

- 야크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크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 봅시다.
- 티베트의 야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동물에는 ‘소’가 있습니다. 야크와 소를 비교해 보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발표해 봅시다.
- 티베트 유목민들은 야크 가족을 만든 텐트에서 유목생활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그려 봅시다.



참고자료

『코박사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여행』,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

: 티베트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코박사 아저씨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티베트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지구촌 탐험』, 로랑스 캉탱, 카트린 레세르 지음 (아이세움)

: 티베트에 대한 특징적인 단어(날말)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야기, 여행을 떠나기 위한 간략한 안내까지 덧붙여진 책입니다.

『티베트』, 피터시스, 엄혜경 옮김, 마루벌

: 아버지가 티베트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경험을 쓴 일기를 통해 중국의 티베트 점령,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들려주고 있으며, 새파란 호수에 사는 사람 얼굴의 물고기 전설, 거인 예티족 탄생에 얽힌 설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신비롭고 몽환적이며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울지 말아요, 티베트』, 정미자 글, 책먹는 아이

: 티베트를 떠나 인도의 다람살라로 가기 위해 가족과 슬픈 이별을 하고 히말라야를 넘는 험하고 위험한 길을 떠나는 티베트 사람들, 다큐멘터리 감독인 아빠를 따라 티베트 사람들과 동행하게 된 열세 살 보건의 여정을 따라가며, 아픈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티베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동화입니다.

『평화를 그리는 티베트 친구들』, 티베트 난민 어린이들, 가르비엘 랩킨 역음, 초록개구리

: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티베트 어린이들이 난민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생활을 아이들의 눈으로 쓰고 그린 글과 그림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글과 그림에 풀이를 달아 티베트와 티베트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이용한 글 사진, 넥서스

: 고대 교역로 '차마고도茶馬古道'를 따라 만나는 비밀스러운 땅 티베트에서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토머스 레어드 저/황정연 역, 웅진지식하우스

: 티베트 전문가인 기자가 달라이 라마와 만나 티베트의 모든 것에 대해 3년간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1600년대 이후 처음으로 달라이 라마가 직접 말한 티베트 문명의 역사와 문화, 정신에 관한 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길의 종착역 티베트』, 남경영 청품 공저, 고려원하우스

- 12년 동안 중국여행을 고집해온 전문가와 중국 현지 여행가가 만나 함께 써 내려간 티베트 가이드북입니다.

-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 <http://cafe.daum.net/tibetsociety>

- 티베트망명정부 (공식) <http://tibet.net/>

- 티베트의 자연환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http://blog.daum.net/light3732/666551>

- 티베트 유목민 텐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http://lovelysuky.blog.me/80146784700>